

# ‘감귤창고’는 감성창고 ‘고물창고’는 보물창고

문화그룹 ‘아트창고’가 감귤창고를 개조해 만든 삼달리 문화공간 ‘차롱’



서귀포시 하례리에 위치한 ‘꿈꾸는 고물상’의 ‘보물창고’ 입구.



제주 레지던스 프로그램  
전남문예재단, 현장견학  
  
‘꿈꾸는 고물상’  
문화공간 ‘시선’ ‘차롱’ 등  
  
지역민과 소통  
이야기 담아내는 공간으로

제주에는 비어있던 감귤창고를 개조해 만든 문화공간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빈집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탄생한 곳들이다.  
제주로 삶의 터를 옮긴 귀향자나 이민자, 제주에 살면서 문화의 주역으로 나선 이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이 추구해 오던 자생적인 문화운동과 결합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지난 11~13일 지역 협력형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주 지역 레지던스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우수사례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에는 전남

거주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과남도 문화예술특성화 기획사업에 선정된 단체 및 도내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서귀포 남원읍 하례리에 있는 ‘꿈꾸는 고물상’은 제주문예재단의 빈집 프로젝트로 재탄생된 문화예술공간이다. 세 쌍의 예술가 부부로 이뤄진 제주 이민자들이 방치됐던 감귤창고를 폐자재와 버려진 고물들을 재활용해 꾸몄다.  
2층 집을 개조해 만든 창작공간 ‘고물창고’는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과 문화 생산자들이 창작을 하는 공간이며, 이곳에서 만들어진 창작의 결과물들은 또 다른 공간 ‘보물창고’에서 매월 한차례 ‘고물데이’라는 이름

으로 전시된다. ‘꿈꾸는 고물상’은 공연, 전시, 영화감상, 음악나누기, 파티, 세미나까지 모두 가능한 ‘마을을 향해 열려있는’ 소통하는 공간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문화공간 ‘시선’과 삼달리 ‘힐’, ‘차롱’ 역시 빈집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지난 2011년 문화그룹 ‘아트창고’가 감귤창고를 활용해 만들어낸 대안 예술 공간이다.  
‘시선’에는 작가 4명의 작업실 및 거주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작업 현장도 볼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삼달리의 역사와 문화 생태적 가치를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마을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 가시리 창작지원센터와 제주시 ‘문화공간 양’ 역시 제주문예재단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간이다.  
‘가시리 창작지원센터’는 작가와 마을, 마을과 제주도가 함께하는 공공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작가스튜디오 겸 숙소 4동, 공동부엌 겸 로비공간 1동, 목공방 1개동이 마을 공동 소유로 돼 있다. 현재는 영화감독과 설치작가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문화공간 양(상대를 부르는 제주방언에서 이름을 따왔다)’은 올해 설립된 함께하는 예술 제작소다. 기존 가옥을 고쳐서 전시, 작업, 거주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시공간

의 경우 1950년에 지어져 낮고 좁은 제주 전통가옥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고 숨겨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현장을 둘러본 담당 대담미술관 이유정 큐레이터는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레지던스 공간들을 둘러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며 “다만 일정 계약기간 종료 후의 공간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고민은 재단과 예술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 제주=이보람기자 boram@

##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국립광주박물관 11월24일까지 특집전



김인후의 하서집



필암서원 원적

국립광주박물관은 11월24일까지 조선 시대 대유학자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와 그의 위패를 모신 필암서원(사적 제242호)을 집중 조명하는 특집전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을 연다.  
장성 출신인 김인후는 정조가 “도학과 절의, 문장을 겸비한 이는 오로지 하서 밖에 없다”고 평가한 인물로,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되기도 했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문집인 하서집(河西集)과 필암서원의 역대 원장들을 기록한 필암서원 원장선생안(보물 제587호) 등 모두 34점이 전시된다.  
1부에서는 인종이 그려 김인후에게 하사한 ‘인종대왕목죽도’(仁宗大王墨竹圖)를 통해 인종과 김인후의 관계를 조명한다.  
김인후는 1543년 흥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한 관청·世子侍講院) ‘설서’(設書)에 임명되면서 당시 세자였던 인종의 스승으로서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2부에서는 김인후의 생애 및 학문세계와 관련된 유물을 소개하고, 3부에서는 필암서원의 역사를 짚어본다. 4부에서는 김인후의 사후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특히 ‘문정공’(文正公) 시호를 받게 된 경위와 이후 제사에 사용된 ‘치제문’(致祭文) 등을 소개한다. 문의 062-570-70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문학들’ 가을호

편집증 사회 특집  
지역 문인들 소개



광주지역의 대표 문예지 ‘문학들’ 가을호(통권 33호)가 나왔다.  
특집으로 다룬 ‘편집증사회’에서는 권력이 어떻게 공포를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편집증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했다.  
문화비평가 이택광 경기대 교수의 ‘적은 왜 발명되는가’와 문학평론가 강유정씨의 ‘대중 영화의 도덕적 강박’은 작품의 정치적 상황을 대중문화와 연계해 풀이한다.  
광주를 바탕으로 활동한 시인들의 삶과 문학을 정리한 이승철 시인의 ‘광주의 문학정신과 그 뿌리를 찾아서’는 지역 문인들의 다양한 일면을 소개한다.  
우리 사회에서 낯선 타자인 동성애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정완 작가의 ‘이야기들’, 푸블리우스 오위디우스 나소의 ‘변형들’(Metamorphoses)을 번역한 작가 서정인의 글도 읽는 맛을 더해준다.  
이밖에 구효서 작가 등 3명의 소설과 김준태 시인 등 10명의 시, 그리고 조재룡 비평가 등 2명의 평론은 또다른 읽을거리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상표등록 : 41-0241299호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5-18낙지

문의 **061-375-2383**  
HP. **010-6656-0002**